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주어진 일 감당코자

'95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2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30일까지

교회는 1995년도를 시작하면서 주후 2000년을 몇 년 앞두고 교회부흥과 천국일꾼양성, 북한선교, 세계선교, 온 민족 복음화 등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이를 위해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 1995년 전반기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기도회는 제1-1교구부터 차례로 기도하게 되며 교구에서는 자체 기도시간 배정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 24시간 연속기도회는 24시간 연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외에도 교회의 성숙과 부흥,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금년 한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화롭고 질서있는 가운데 감당하고자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기에 직분자들은 가능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예년의 경우에는 뒷사람이 빠짐으로 앞사람이 그 시간까지 매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전체 기도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교구와 각 기도자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속기도회를 하면서 연속 기도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각 교구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각 교구별 기도일자와 배정표

교구	실시시간
1	2월 6일 9시 ~ 2월 13일 9시
2	2월 13일 9시 ~ 2월 20일 9시
3	2월 20일 9시 ~ 2월 27일 9시
4	2월 27일 9시 ~ 3월 6일 9시
5	3월 6일 9시 ~ 3월 13일 9시
6	3월 13일 9시 ~ 3월 20일 9시
7	3월 20일 9시 ~ 3월 27일 9시
8	3월 27일 9시 ~ 4월 3일 9시
9	4월 3일 9시 ~ 4월 10일 9시
10	4월 10일 9시 ~ 4월 17일 9시
11	4월 17일 9시 ~ 4월 24일 9시
12	4월 24일 9시 ~ 4월 28일 9시
13	4월 28일 9시 ~ 4월 30일 9시

· 실시일: 1995년 2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 4월 30일(주)까지
· 대상: 교역자 · 장로 · 집사 · 서리 집사 · 권찰 · 원하는 성도

· 장소: 24시간 연속기도실 (나사렛홀 입구)
· 방법: 개인당 1시간(단 2인이 함께 기도 허용, 3인은 불허함)

95년도 연속기도회 기도제목

- 참된 예배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총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예배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2) 예배위원 · 성례위원 · 안내위원 · 헌금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과 지혜와 친절로 수종들게 하옵소서.
- 총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 대학생들이 교회와 민족을 짊어질 천국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1)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성경 · 봉사로 자라게 하옵소서.
(2) 총현의 모든 일꾼들(직분자 · 교구일꾼 · 전도회일꾼 · 교사 · 찬양대원 · 안내위원 · 차량위원 · 양육위원 · 교회직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시며 성령 · 말씀 · 기도 충만으로 총현의 양 무리를 푸른 초장과 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시 27개 교구와 26개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 교사양성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숙한 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 총현의 식구들마다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이 민족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1)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2) 태신자를 잉태하고 믿음과 기도와 돌아봄으로 해산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 주옵소서.
(1)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소서(서만수 · 육호기 · 이준교 · 김주경 · 안석렬 · 김은태 · 김영대 선교사/유병세 · 김형선 · 한영자 · 이기성 · 박정아 · 김철영 ·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
-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구제 잘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2)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3)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총현의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1) 등록된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 천국의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총현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2) 양육위원들이 불타는 소명의식과 성령충만으로 새가족을 기쁨으로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 우리 총현의 찬양대가 하늘나라 찬양대처럼 되게 하옵소서.
(1) 모든 찬양대마다 영성이 있는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2) 찬양대원양성부를 통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 기도가 불처럼 타오르고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우리 총현 기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1) 기도원에 새 성전을 건축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2)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며,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생명이 풍성한 기도원이 되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 제2교육관 공사가 잘 진행되어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이 건립되어 중국 땅과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요,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 열심히 모이는 우리 총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주일 낮 예배와 찬양예배와 수요기도회와 금요찬양집회,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모이게 하옵소서.
(2) 880구역마다 열심히 심방하고 구역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3)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보의 성경통신에 참여하고 주간 성경공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 환자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 임시생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합력하게 하소서.
- 해외와 지방으로 출타한 성도들이 주님안에서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 군대에 나간 아들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 가정마다 인가 귀도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결혼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1) 김영삼 대통령에게 다윗 같은 믿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모세같은 말과 행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2) 손명순 영부인에게 에스테르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3) 전쟁없고, 내란없고, 부정부패 없고, 우상숭배 없는 나라 되게 하소서.
(4) 복음의 나라 · 정직 · 질서 · 양보의 나라, 끝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5) 자유 · 민주 ·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를 위해 기도 구제 선교하는 나라 삼아주옵소서.
- 회교전 선교를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독일과 터키를 방문중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과 함께 하사 귀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금주의 교회행사

1. 금요찬양집회 · 구역예배 · 구역장 공부

그동안 연초나 구정 등으로 1개월 동안 쉬었던 금요찬양집회(금)와 구역예배(금), 구역장공부(금)가 금주부터 일제히 시작합니다. 금요찬양집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구역예배는 각 구역별로 금요일에, 구역장공부는 매주 수요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합시다.

2. 청지기훈련 제1차 주간

지난 1월 22일(수) 청지기훈련 전체주간으로 모인 후 제1차 주간으로 2월 8일(수)과 9일(목)에 모입니다. 제1차 주간으로 모이는 금주에는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의 훈련

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시작 전에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3. 대학부 겨울수련회

교회학교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2월 6일(월)~9일(목)까지 총현기도원에서 모입니다.

· 주제: 보라 지금은 성령받을 만한 때요 이제는 부흥의 날이로다
· 강사: 장봉생 목사(대학부 지도)

4. 새가정부 겨울수련회

교회학교 새가정부 겨울수련회가 2월 11일(토) 새가정부실에서 모입니다.

· 주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강사: 박정규 목사(새가정부 지도)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2 ●

다섯째 나팔 재앙

(계 9:1-13)

1.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1절) 사도 요한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만 얘기했지 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는데, 무저갱이란 지옥, 즉 음부의 심연(深淵), 깊은 못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받았습니까? 사탄 외에는 아무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지옥의 임금이 라고 할 수 있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눅 10:18). 이사야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사 14:12).

원래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자기 자신의 세력들을 해방시켜서 세상에 출몰하는 제한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무저갱의 사자를 히브리음으로는 멸망자라는 뜻의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음으로는 파괴자라는 뜻의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본질은 파괴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천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기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해임시켰는데 해임이 되자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후 사탄은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시기심, 미움과 좌절감을 갖게 하는 일을 사탄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특성은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넘어갑니다. 또 사탄은 가는 곳마다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방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사탄은 분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사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다섯달 동안’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괴롭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5절). 왜 하필이면 다섯 달 동안입니까? 다섯 달 동안이라는 말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단 사상을 뜻하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원래 메뚜기는 봄부터 여름까지만 살고 가을이 되면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다섯달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달 동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며,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권세는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한계 동안만 있는 것입니다.

전갈은 사막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것에게 쏘이면 꼬리에서는 독이 나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도 한계가 있는 권세입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의 경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인간을 연단시키는 데 때에는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4절).

우리는 사탄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 다섯째 나팔재앙

다섯째 나팔재앙은 황충재앙입니다.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는 한 번 날았다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기 때문에 하늘의 해가 보이지 않고 날개치는 소리가 너무나 요란합니다. 그리고 내려앉을 때는 기어가 는 용단과 같이 땅을 완전히 덮고 가는 곳마다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나무 겹질은 물론이고 옷감, 밧줄까지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재앙 하면 굉장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메뚜기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메뚜기는 그들에게 항상 재앙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재앙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바로 메뚜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이단사상이 메뚜기들입니다.

메뚜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7절) 전쟁을 위해서 말을 예비할 때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징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처럼 그 세력에 변해갈 때는 급속도로

교회는 주님의 품 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의 품안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높여 찬양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변져갑니다. 지난 80년 동안 세계의 절반 이상을 점령했던 공산주의가 변져간 속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처럼 굉장한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7절) 면류관을 썼으면 승리가 되었을텐데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즉 거의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거의 승리했습니다.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승리했지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사상, 급진적 자유주의는 거의 승리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패배하고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7절) 사람은 지혜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사탄의 악한 지혜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교,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유식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얼굴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8절) 황충이는 더듬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황충이의 매력을 뜻합니다. 여자들의 매력은 머리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사상, 공산주의, 주사파들, 김일성 주체사상, 다미선교회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해볼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9절) 사자가 한번 물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정도로 사자의 이빨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입에 들어가면 완전히 먹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이나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흥종교 혹은 공산주의에는 엄청난 파괴력과 잔인성이 있습니다.

“또 철홍갑 같은 홍갑이 있고”(9절) 철홍갑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창으로 찔러도 철홍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힘, 세력은 다른 것으로는 쳐부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 급진적인 신학을 비판해도 그들은 가짜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9절) 황충은 날아갈 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그 소리가 보통소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공격력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그들의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합니다. 이처럼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 이단 사상,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10절) 황충은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에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꼬리는 선전을 뜻합니다. 선전술이 얼마나 무섭고 간교한지 거기에 한 번 지성인들이 넘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에게서부터 해방당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천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자, 세상에 내려와 인간들을 육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주고 낙심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다를 가른지 참된 안식처는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곳입니다. 땅주, 참방주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 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의 품안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높여 찬양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95년도에는 한 사람도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황충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탄의 계책을 모두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회교권 선교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

우리는 왜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권 형 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중헌선교연구원 장사>



▲ 모슬렘 세계권

가끔 화려한 이태원 거리를 지나 치지만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사원은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여기가 바로 1976년 준공된 한국 이슬람교 중앙본부이다. 이슬람 사원은 현재 한국에 네 개가 있고 계속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세가 크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의 국내 팽창을 경계함과 동시에 모슬렘권에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이슬람이란 "신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아랍어 단어로서 그 추종자들을 '복종하는 자' 곧 모슬렘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을 아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이는 없다. 생활 그 자체이다. 그러기에 그 힘이 더 강한지도 모른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0억, 1964년 통계로는 약 2억 4천만이었다. 26년 동안에 4배로 신도수가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 기독교의 부패와 나약함이 아니었던들 태동도 하지 않았을 그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감해야 한다.

이슬람권은 오랫동안 가난한 문명지역, 열등한 문화권으로 서구에 소개되었다. 현대에는 전 세계가 이슬람권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강한 대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이슬람교의 정세, 그 힘과 위치를 생각할 때 이슬람권에서의 복음 선교는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를 해 온 이들은 전도와 여러 봉사가 모슬렘들에게 잘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한편, 이슬람교는 이슬람권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조직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슬람교는 이제 중동의 종교로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세계 여러 지역에 모슬렘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 확장을 기하고 있다. 이 종교적 열성이 또한 새로운 힘이며, 이슬람교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교리는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슬람교와 타협할 수 없다.

이슬람교의 신앙내용은 어떠한가?

이슬람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가 아니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다. 법(샤리아)이 분명하고 종교적인 행동 규범이 확실하게 규명된 것으로서, 엄격하고 철저한 공동체를 주장한다. 이러한 평가가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슬람교를 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교에 대한 무지의 노출인 것이다. 이슬람교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수백년에 걸쳐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왔고 현대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적인 종교들과 같이 학술적인 깊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 방면의 전문가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 있었으나 결코 전쟁을 계기로 중동 및 이슬람에 관한 연구가 긴급히 요구됨을 실감하고, 조금씩 자료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가 거의 없

어 아직도 초기 연구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주후 570년에 사우디아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메카에서 출생하였는데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정식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문맹자였다. 그런데 40세가 되는 해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소위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교 경전이다. 그는 스스로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최후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도 불완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종교들을 마치 자기가 완성한 것처럼 생각한 다.

그가 62세에 병으로 사망한 후에는 11명의 미망인들이 남았다고 전한다. 이슬람교의 대표적 신앙적인 의무를 흔히 '다섯 기둥'이라고 하는데 첫째, 신조 암송 '가능한 한 하루에 많이 반복한다', 둘째, 매일 메카를 향한 5회씩의 기도, 셋째, 구제의 의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빈자를 돕는 것', 넷째, 정기적인 금식 '연중 1개월 동안 낮 동안만 시행하며 평생 계속한다', 다섯째, 성지순례에서 죽을 경우 순교자 명단에 기록해주며 모든 신도들이 행한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나, '지하드'의 의무가 있어서 알라의 이름으로 적을 무찌르는 전쟁에 참여하여 이슬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모슬렘들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 전사하면 곧장 낙원에 간다고 믿는다. 이슬람교는 전투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종족이나 민족의 구별이 없이 보편성을 강조하고 신자가 되는 길이 너무 단순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와의 빈번한 충돌로 인하여 기독교인과 기독교 선교사에 대하여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수용하지도 않는다.

알라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 권력의 세계이다. 이슬람교의 목적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이지만 그것은 국가이다. 모슬렘들은 신앙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모슬렘들은 선교사라는 것을 모두 정치인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교사가 오면 종교적인 목적만 가지고 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목적 더하기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간주한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선교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슬람교가 기독교 이후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무함마드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타협해야 했다. 무함마드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에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부인하고 말았다. 그래서 코란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을 우

리는 알 수 있다. 무함마드는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사한 뛰어난 선지자로 그리고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 대속의 죽음의 참된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즉 모든 모슬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코란 방식의 그리스도라는 어두운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슬렘들과 대화할 때 출발점이자 결론이 되어야 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코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점을 보면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초자연적으로 탄생시킨 후에 6백년이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을 메카의 무함마드에게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무함마드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다른 영이고, 잘못된 영이지, 성령도 천사 가브리엘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무함마드는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사실이다.

코란에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대답이 될 것이다. 코란에 담긴 내용의 80%정도는 진정한 진리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코란 속에는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참된 길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여기에 독약 세 방울만 떨어뜨려보자. 모양은 아직도 깨끗해 보이지만 이 물을 마시면 금방 죽게 된다. 이것이 곧 이슬람인 것이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이슬람교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제1서전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요일 2:18-23, 4:1-6)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교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정하게 고백해야 한다.

이처럼 이슬람교가 유대교,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후대의 종교라는 것과 부정확한 지식을 지녔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가장 뒤늦게 일어난 종교로서 교조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나 영향을 받았음을 반영하는 사례일 뿐이다. 주전 약 4세기 경에 아라비아 반도에 기독교가 유입되었다. 당시에는 토착적인 다신교가 성행하였으며 기독교 또한 유일신의 개념이 아닌

다신교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라'라고 지칭하며 무함마드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영이요, 알라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깨끗하지 못한 사탄의 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적으로 변하여 큰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모슬렘들에게는 소용이 없는가?

우리는 1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에 10명의 목회자만이 사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오늘날 10억의 이슬람교도들에게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는 약 9백-1천명 뿐이다. 그러니까 모슬렘 1백만명당 약 1명꼴의 선교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중동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서 250만명당 1명꼴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양적, 영적으로 부흥의 축복을 누려온 오늘의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에도 열심을 보여 벌써 상당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그러나 모슬렘권에 나가는 선교사들조차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비교적 사역하기 수월한 나라를 선호하고 복음의 최대 불모지인 정통 이슬람권인 중동지역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모든 족속에는 중동의 아랍인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미국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의 랄프 윈터 박사는 모슬렘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극심한 소홀'(The Massive Omission)이라고 표현,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이 중요한 표적을 겨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복음의 최대 불모지 중의 하나인 모슬렘 국가들, 복음전파에 저항과 필박이 가장 심한 곳이며 선교사들조차 기피하는 가장 어려운 이 지역에 누군가 뛰어들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10억의 모슬렘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주님은 작은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자체는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슬람은 실로 큰 산이다. 그 산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슬렘들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모슬렘들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품고,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고 지원하는 선교사라도 되어야겠다.

거대한 산 이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나는 많은 헌신자들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모슬렘 선교 사역에 관심을 쏟고 도전해야 하리라.

토·막·소·식

◆ **탁아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주일에 배를 드리며 오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한다. 예배시간 전에 어린아이를 탁아부실에 맡기고 예배 후 찾아가면 된다. 매주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어린아이를 돌보아준다. 탁아부에서는 120여명의 교사가 있어 한 아이씩을 기도와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 **영아부**는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모인 교회학교로 금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작하고 있다. 또한 2월 12일에는 "새친구 초청잔치"를 열어 해당 연령층의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영아부는 현재 I부는 오전 8시 50분에 II부는 오전 10시 50분에 영아부실(선교관 1층)에서 모인다.

◆ **유아부**는 금년도에 신설부서로 만 3~4세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학교이다. 모이는 시간은 I부 오전 8시 50분, II부가 오전 10시 50분에 유아부실(교육관 212호)이다.

◆ **초등6부**는 면려회 총회를 갖고 회장에 김영준, 부회장에 오은환 어린이를 선출했다.

◆ **새가정부**는 오는 2월 19일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 **에바다부**는 수요일 I부 예배(오전 11

시)에도 수화통역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일 III부 예배와 주일 저녁찬양예배, 금요집회 등 모든 공식예배에 수화통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영숙 전도사 부임



김영숙 전도사(사진, 만 48세)가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했다. 김전도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동안 여성 전화 상담 자원봉사자로, 부평 진광교회 심방전도사로 일했다. 우리 교회 2-2교구 교역자로 일하게 됐다.

95년도 교회요람을 위한

주소 확인하도록

1995년도 교회요람에 게재되는 직분자 주소록에 변동이 있는 사람과 지난해 주소록에서 착오가 있는 사람들은 교구 교역자나 간사에게 변동사항을 알려 주어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이번에 고친 자료로 전산실의 자료를 수정, 확정하게 되기에 교구에서는 특별한 마음으로 신경써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부목사 초빙 안내

충현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와 교회 교육을 연구하실 부목사님을 초빙코자 합니다. 이 방면에 소명을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뜻을 가지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역부서 : 1) 청소년(고등부·대학부·청년부) 지도 목사
2) 교회 교육연구소 지도 목사
2. 자 격
1) 충신대 신대원 졸업자
2) 해당분야에 소명감과 열정이 있으신 분
3) 해당분야를 전공하시고 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해당분야에 대한 자기의 비전 중(택일)
4) 당회장 혹은 기타인의 추천서
5) 충신대 신대원 졸업증명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4), 5), 6)은 면접 이후 제출해도 가함
4. 제출기간 : 1995년 2월 24일까지
5. 면 접 : 1995년 3월 3일 (개인별로 면접시간 사전 통보)
6. 제 출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문의 552-8200, F 563-3932)
1995년 2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인사위원회

전화로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

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장인 목사님 : 2월 8일(수) 청지기훈련 장로반 강의
· 신성종 목사님 : 2월 6일~17일 선교지 순방(이집트·이스라엘·독일·터키)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를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김립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선교지 순방을 축복하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장년1부 겨울수련회 2월18일~19일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 손경수 장로)는 제1회 겨울수련회를 오는 2월18일~19일까지 갈릴리움에서 개최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자"란 주제로 개최되는 동 수련회는 이한수 목사(장년1부 지도)가 주강사가 되며, 개최예배를 비롯

하여 특강, 공동체훈련, 심령부흥회 그리고 찬송의 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수련회는 40대 남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영성훈련을 통한 교회 봉사에 역점을 두게 되며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주일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참가자의 회비는 무료이다.

1995년도 상반기 찬양대원 모집

찬양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각 찬양대별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자격은 ①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 성도, ② 음악을 전공한 성도, ③ 배우려는 태도와 주님께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진 성도, ④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성도는 준비된 소정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어예배부의 독창자도 모집하고 있다. 각 찬양대의 예배찬양시간과 연습시간을 살펴보고 형편에 맞추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 독창자(Solist)모집
1) 영어예배 찬양대
2) 성악 전공자

- 서류제출 장소
1) 찬양위원회실(본당 106호/ Tel 552-8200 교 205)
2) 사무국 접수창구(총무과)

찬양대별 찬양 담당 및 연습시간

구분	예배시간	주일 연습	평일 연습
주일1부 가브리엘	07:00-08:00	예배전후 1시간	(금) 19:00-21:00
주일2부 임마누엘	09:00-10:00	예배전후 1시간	(토) 16:30-18:30
주일3부 할렐루야	11:00-12:00	예배전후 1시간	(토) 17:00-19:00
주일4부 아 멘	13:00-14:00	예배전후 1시간	(금) 19:00-21:00
주일 영어예배부 시온	09:00-10:00	시작전 1시간	(토) 17:00-19:00
수요1부 호산나(여성)	11:00-12:00	(주) 16:00-17:00	시작전 1시간
수요2부 실로암	19:00-20:00		수요예배전후 1시간
핸드벨코어	매월 1, 3주 저녁	(주) 16:00-17:00	
크로마하프·만돌린	매월 4주 저녁	(주) 16:00-17:00	

물맷돌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들의 행실은 언제나 우리들이 믿는 바에 비추어서 필연적인 무엇이여야 한다. 만일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게 전혀 '필연적'이지 못하고 그 필연을 피하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면, 내가 언제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행실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의 결과이어야 한다.